

호스피스부

공활의 마음으로 피어나는 호스피스 섬김

서로가 꽃, 서로가 기도

지난 4월 29일 수요일은 호스피스 사역의 의미를 다시 마음에 새기는 뜻깊은 시간으로 드러났다. 독일 해로() 호스피스에서 사역 중인 박희명 선교사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마태복음 9:35-38)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으며, 호스피스 사역에 마음을 둔 4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했다. 이날 호스피스부원들은 특송으로 ‘혼자 견지 않을 거예요’를 찬양하며, 주님의교회 호스피스 봉사의 날의 의미를 함께 나누었다.

공활은 곁에 머무는 사랑

박희명 선교사님은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한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중심에는 공활의 마음이 있어야 함을 전했다. 공활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아픈 자의 곁에 머무는 구체적인 사랑임을 강조했다. 이어 독일 베를린에서 파독 광부와 간호사로 살아온 어르신들을 섬기는 해로 호스피스 사역을 소개했다. ‘존택스 카페’를 통한 예배와 식사, 치매 환자 방문, 호스피스 돌봄과 장례 지원에 이르기까지 삶의 끝자락을 동행하는 이야기는 참석한 성도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교회의 역사와 함께 이어온 호스피스 사역

이날의 말씀은 우리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호스피스 사역도 다시 돌아보게 했다. 주님의교회 호스피스 사역은 1990년 한양대병원 수요일예배 방문과 마사지, 목욕 봉사를 시작으로 이어졌고, 1993년에는 제직회 한 부서인 대외봉사팀으로 정식 출발했다. 1994년에는 한국 자원봉사능력개발연구회, 무지개 호스피스의 전신에서 12명이 교육을 수료하며 본격적인 호스피스 봉사를 시작했다. 이후 2026년까지 700명 이상의 봉사자를 양성했고, 여러 병원과 장애인 시설, 복지기관, 가정 호스피스 현장에서 섬김을 이어왔다.

손끝의 온기로 전해지는 섬김

현재도 호스피스부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마다 샘물호스피스를 방문해 환우들에게 아로마 발마사지를 제공하고, 사랑의 뜨개질로 만든 겨울모자와 워머를 전달하고 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의정부의료원 등 여러 병원의 호스피스병동에서 발마사지와 침상 목욕으로 환우들의 곁을 지키고 있다. 샘물호스피스와 아주대학교 경기지역 암센터, 성빈센트병원 등에 전달된 사랑의 모자는 병원 관계자들에게도 따뜻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곳에 계속 전해질 예정이다. 올해 어버이날에는 성남의료원 호스피스완화병동에 여름모자를 전달해드렸다.

국경을 넘어 이어지는 생명 돌봄

호스피스 사역의 지경은 국내에만 머물지 않는다. 주님의교회 호스피스부는 베트남 호찌민시 스프링 호스피스를 위해 기도와 성금으로 동역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숄바에서 호스피스 사역을 준비하는 선교사와 현지 의료·복지 관계자들이 샘물호스피스 봉사 현장을 방문해 봉사의 마음과 자세, 발마사지 방법 등을 배우는 시간도 가졌다. 작은 섬김이 또 다른 땅의 생명 돌봄으로 이어지는 귀한 장면이었다.

공활이 피워내는 동행

주님의교회 호스피스 사역은 교회의 역사와 함께 무르익어 왔다.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봉사자들의 마음과, 삶의 마지막 길까지 외롭지 않도록 곁을 지키려는 기도가 이 사역의 중심에 있다. 지금도 이 사역은 더 많은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환우들을 섬기기 위한 승합차량 운전 봉사자가 필요하다. 누군가의 아픔을 향한 공활이 기도가 되고, 손과 발의 섬김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일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향한 기도로 연결된 공동체다. 공활의 마음이 멈추지 않는 한, 주님의교회 호스피스 사역은 앞으로도 삶의 끝자락에 선 이들의 곁에서 조용히, 그러나 아름답게 피어날 것이다. **함글함글**